

소통·배려·현장... 광주 區政 새바람 분다

회의 대신 토론·스탠딩 결재 공무원 익명자유게시판 부활 5개 초선 구청장들 파격행보

광주지역 5개구청 초선 구청장들이 '5인5색 행보'로 구정에 새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18일 동구에 따르면 기초·광역의원 출신 임택 동구청장은 민원인들의 응대 방식부터 변화를 줬다. 민원인이 나갈 때 반드시 복도까지 따라 나가 배웅하고 있다. 민원인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더라든 서운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주려는 배려다. 매주 월요일마다 개최하는 간부회의를

토론 방식으로 바꿨다. 간부들은 청장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청취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있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직원에게 먼저 다가가 90도 인사하는 등 탈 권위적인 소통행보를 하고 있다. 그동안 갈등의 골이 깊었던 노조와의 상생을 위해 지난 2015년 폐쇄했던 공무원 익명자유게시판을 3년 만에 부활시켰다. 현안 해결에 전념하기 위해 의례적인 행사와 번잡한 업무는 간소화하거나 지양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첫 정례회를 직원 참석없이 청내방송 대신하고 회의시간도 줄였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폭염에도 지역 현안을 살피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다. 김 청

장은 지난 12일 봉선1동을 시작, 18일 오후 대촌동을 끝으로 남구 지역 16개 동을 돌면서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지역의 살아있는 의견을 듣기 위해 5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순방을 진행했다. 사무실보다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보다. '행정의 달인' 문인 북구청장은 파격적인 결재 방식을 도입했다. 직원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최근 집무실에 스탠딩 책상을 설치했다. 직원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결재하기 위한 배려가 깃들여 있다. 구정방향을 모든 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간부회의를 청내방송을 통해 각 동사무소가 전파하고 있다. 또한 1층 민원실에 직소민원 형태의 '주

민 소망창구'를 운영해 민원인과의 접촉을 늘리고 매주 목요일 정례적으로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구정목표인 '내 삶이 행복한 매력·활력·품격 광산'을 지키기 위해 내실을 다지고 있다. 첫 대외 활동으로 21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직원들과 티타임을 열었다. 구청을 찾는 구민들의 주차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용차와 직원 뒤편으로 할당했던 청사 지하주차장 63면을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민원인용으로 전환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최승철 기자 srchoi@kwangju.co.kr



“생수 마시고 기운 차리세요” 광주시 북구청 직원들이 18일 우산동 우산근린공원에서 어르신들에게 얼음생수를 나눠주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염전 노예 오명 벗기 신안군 조례 만들고 장애인 전담기구 설치 인권 침해 제로화 도전

속칭 '염전 노예' 오명으로 지역 이미지가 실추된 신안군이 '인권 침해 제로화'를 선언했다. 18일 군에 따르면 염전, 양식장, 농장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기로 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행정적 개선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2014년 2월 신안에서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사건 발생 이후 신안군을 비롯한 관련 기관(경찰·고용노동부·장애인인권보호 단체 등)이 합동으로 피해자 구제와 사후 예방대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군에서는 당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권회복 및 생활안정을 위한 상담을 제공하는 등 복지지원 사업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제도적으로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해 신안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장애인 복지담당을 위한 전담기구도 설치했다. 지자체에서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이같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례적이다. 신안의 실추된 이미지를 바꾸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학교 석면 제거·해체공사 흔적도 안 남긴다

잔재물 책임 확인제 시행...올 여름방학 기간 광주 2개교·전남 34개교 공사

학교 석면 해체·제거시 석면 고정용 철골구조물까지 해체하도록 하고 감리인 실명제가 도입되는 등 대책이 강화된다. 공사 후에도 학교 내에 석면 잔재물이 다수 발견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여름방학에 전국 641개 학교에서 시행하는 석면 해체·제거 공사에서 강화된 석면 특별관리 대책을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올 여름방학 기간 광주에서는 2개 학교, 전남에서는 34개 학교에서 석면 해체 공사가 진행된다. 강화된 대책은 우선 해체작업 중 석면 가루가 작업구역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닥과 벽에 이중으로 비닐을 덮도록 했다. 석면 마감재가 붙어 있던 경량철골(M-bar)까지 이 비닐밀폐막 안에서 철거하도록 했다. 작업이 끝난 뒤 모니터단이 검사를 통해 이상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리모델링 등 다음 공정을 진행하는 '잔재물 책임확인제'도 시행한다. 석면 잔재물이 나올 경우 모니터단이 정밀 청소 등 조치방안을 결정하면 석면 해체·제거업체는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정부는 부실 석면 해체·제거 업체와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석면해체 작업감리인이 감리를 부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2 | 해질 19:45 | 달 뜨기 12:06 | 달 지기 ---

열사병 조심하세요
낮 기온 매우 높고 일부지역 열대야 있겠다.

광주	맑음	25/36	보성	맑음	22/34
목포	맑음	24/33	순천	맑음	25/35
여수	맑음	25/33	영광	맑음	23/33
나주	맑음	23/35	진도	맑음	23/33
완도	맑음	23/34	전주	맑음	24/35
구례	맑음	24/36	군산	맑음	23/31
강진	맑음	22/34	남원	맑음	23/35
해남	맑음	22/33	축산도	맑음	23/29
장성	맑음	23/34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	북서~북	0.5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서~북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동~동	0.5	남동~남	0.5
남해 서부 앞바다(서)	서~북서	0.5~1.0	북동~동	0.5~1.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생황지수

경고	위험	보통
식중독	지외선	미세먼지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2:02	06:57
19:21	19:21	
여수	07:35	01:27
	19:56	14:03

◇주간 날씨

20(금)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26(목)
☀	☀	☀	☀	☀	☀	☀
25/36	25/37	25/37	25/35	25/36	25/35	25/35

광주·전남 폭염 가축폐사 13만마리로 급증

광주·전남지역에 9일째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환자와 가축 폐사 등 피해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18일 광주시·전남도도에 따르면 장기폭염으로 이날까지 광주 26명, 전남 62명 등 온열환자가 집계됐다. 이날까지 폭염으로 전남지역에서 폐사한 가축은 121농가, 13만8700마리에 달한다. 피해액은 9억22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전날 집계된 12만4000마리보다 1만4000마리(11.25%) 증가한 수치로 피해농가도 24곳, 피해액도 2억1400만원이 증가했다. 가축 종류별로 닭 12만8000마리(48농가·3억3300만원), 오리 1만마리(6농가·4800만원), 돼지 700마리(67농가·5억4100만원) 등이다. 나주에서만 3만3000여 마리가 폐사했으며, 영암(2만5000마리), 곡성(2만2000마리)이 뒤를 이었다. 전남도는 가축피해 예방 현장 기술지원 단과 여름철 가축질병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폭염관련 가축 피해 대책을 마련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서도 일본뇌염 매개 빨간집모기 발견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2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일본뇌염경보를 발령한 지 일주일 만에 광주에서도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진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광주 지역 3개 지점을 선정해 모기를 유인하는 트랩을 설치하고 매주 모기를 채집한 후 모기분류와 개체수 및 밀도 등을 파악해왔다. 또 채집된 모기에 대해서는 일본뇌염바이러스 및 뎅기열, 자카바이러스 등 해외유입감염병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작은빨간집모기는 예년보다 2주 빨리 발견됐으며, 일본뇌염바이러스 및 해외유입감염병 병원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작은빨간집모기는 4월부터 활동하기 시작해 8~9월에는 개체수가 많이 증가하며, 주로 밤 10시부터 활발하게 흡혈활동을 한다. /오광록 기자 kroh@

태양광 연계 ESS 설치 전문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REC가중치 5.0배 (2019년까지 연장)
설치방법 : ① 렌탈 : 설치비용 0원 ② 무담보 : 90% 신용대출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썬그린에너지(주)

상담 1577-3093 ◀광주,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 곡성, 장흥, 화순
1566-1394 ◀목포, 나주, 해남, 완도, 진도, 강진, 함평, 영광, 무안, 신안

ESS 통합시스템 ESS는 핵심인 리튬배터리를 비롯한 모든 구성요소를 직접 생산하고, 사업성 분석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수행함으로써 ESS에 요구되는 15년 이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2016년 9월 20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19일(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 태양광 + ESS에 REC 가중치 5.0 부여 -
태양광 발전소에도 ESS 설치 대폭 확대